

“재소자 부부관계 위해 경찰차 동원”

아르헨티나 경찰이 사회와 격리된 범죄자 부부의 부부관계를 위해 순찰차를 투입하게 됐다. 지방의 한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자 재소자가 부부관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낸 소송에서 사법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5일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남자는 산타페주 그란로사리오에 있는 피네로 교도소에서 강도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다. 이 남자의 부인 역시 절도 등의 혐의로 가택에 연금된 상태이다. 그런데 남자는 지난해 법원에 황당한 소송을 냈다. 부부관계를 가질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면 정기적인 만남을 허락해달라면서 낸 소송이다.

어이없는 소송이었지만 결과는 더 황당했다. 소송을 맡은 판사가 남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부부관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

여성 판사인 발레리아 페드라나는 “부부관계는 부부의 정당한 권리” 라면서 “최소한 1주일에 1회 부부가 만나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부부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곳에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재소자들에게 일반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면회 요일을 조정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

더 황당한 사실은 경찰에게 ‘택시서비스’ 까지 책임지라고 명령한 것이다. 남자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와 여자가 가택연금으로 갇혀 지내는 집은 약 40km가량 떨어져 있다.

부부가 모두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인 만큼 부부관계를 위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풀어줄 수는 없는 일. 판사는 “면회가 잡힌 날에 경찰차로 부인을 집에서 교도소까지 데려가고, 부부관계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한 경찰 고위 간부는 “부인을 교도소까지 데려다 주고, 부부관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자택에 데려다 주라니 경찰이 범죄자 경호원이라도 된다는 말이나?”고 목청을 높였다.

이 판결로 이들 부부는 이달부터 주 1회 만나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양부모에게 초호화 저택 선물한 청년

필리핀의 한 청년이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게 감사의 뜻으로 초호화 저택을 선물한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에 따르면 하비(28, 남)는 세 살 때 부모에게 버려졌다. 그를 발견한 부부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를 입양했다. 양부는 호텔 포터로 일했고, 양모는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삶의 터전은 20m²의 비좁은 공간으로 걸핏하면 전기가 나가고 쥐들이 출몰하는 허름한 아파트였다. 하지만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사랑으로 키웠다.

하비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하루 두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다.”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가족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소망을 품으며 자랐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보험회사에 취업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 직장 생활, 7년 후 그는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재산으로 그는 평생 염원해왔던 꿈을 실행키로 했다. 다음 아낀 고아인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양부모에게 보답하기 위해 아름다운 저택을 짓기로 한 것. 그는 7개의 룸이 있는 3층짜리 고급 빌라를 건축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 온 양부모가 이제는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린 것이다.

청년의 사연에 수많은 네티즌들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성실하게 자란 훌륭한 청년”, “가정의 변함없는 사랑과 행복을 응원한다.”는 등의 칭찬 댓글을 이어갔다.

17년 ‘절친’이 알고 보니 자매

17년간 절친으로 지내온 두 여성이 이복 자매라는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CNN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는 애슐리 토마스(31)와 라토야 윌버리(29)는 17년 전 우연히 한 사람의 생일파티에서 처음 만났다. 10대 초반이었던 두 사람은 외모와 관심사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 곧 ‘절친’이 됐다. 이후 두 사람은 17년 동안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를 ‘자매’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 1월, 라토야는 자신의 약혼을 기념하는 파티 공지를 SNS에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라토야 외에도 라토야 아버지의 사진도 담겨 있었다. 애슐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해당 게시물을 공유했고 이는 고스란히 애슐리의 SNS 친구들에게 전해졌다. 이 중에는 11년 전 사망한 애슐리 어머니의 오랜 친구도 포함돼 있었다.



▲ 왼쪽부터 라토야 윌버리, 윌버리의 아버지, 애슐리

애슐리 어머니의 친구는 라토야 아버지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녀는 “사진을 보자마자 애슐리의 엄마가 오래 전 잠시 만나 헤어졌지만,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애슐리까지 출산한 배경에 있던 그 남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라토야의 아버지 역시 당시를 기억해 냈고, 이들은 지난 2월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라토야의 아버지와 애슐리는 의심할 여지 없는 혈연 관계였으며, 이로써 17년간 절친으로 지냈던 라토야와 애슐리도 배다른 자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애슐리는 “라토야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줄곧 나를 친딸처럼 대해줬다. 항상 나를 위해 있어 주셨다.”고 회상했다. 두 여성의 아버지는 “애슐리를 딸로서 더욱 사랑할 것이며, 새로 알게 된 손자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